

대학의 이념과 관리운영의 원칙

이 광 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학은 본래 학문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존재로서 하나의 조직체이다. 바꿔 말하자면 학문적 기능체로서 사회에 유의한 것으로 존재하고 그 기본적 기능은 역사 속에서 거의 불변한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퍼킨스가 그의 저서 『대학의 미래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①지식의 획득(연구·조사의 사명수행), ②지식의 전달(교육의 사명수행), ③지식의 응용(사회적 환원)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대학의 사명은 자유로운 연구에 의하여 지식을 획득·축적하고, 그것을 교육에 의하여 전달하고,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살려서 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획득된 지식 자체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사고능력과 고도의 교양을 가지고 전 인류적 시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격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인류사회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인식 아래 대학의 구조와 관리 운영 방식이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세 대학의 이념형은 훔볼트나 야스퍼스가 말한 ‘이념을 같이하는 인간들의 순수한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이고, 또 뉴만이 말한 ‘승원적 대학’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족한 ‘새로운 대학’은 오늘날의 클라크 커가 말하는 멀티버시티화 하여 대학의 이념을 크게 변화시켰다. 오늘날의 대학은 단일조직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교육·연구 기구, 서비스 기관, 관리기구의 복합체이다.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연구·교육자군, 대학원과 학부 및 기타 방대한 수에 이르는 학생군, 직접 학문에 관계가 없는 사무직원군, 그리고 관리당국 등 다종다양하다. 또 대학의 주변에는 동창회, 대학연합체, 일반사회, 산업계, 정당, 행정기관 등이 끊임없이 대학에 관계해 오고 있다. 대학 자체는 때로는 사회에 봉사하기도 하고, 사회를 비판하기도 한다. 또 대학은 기회균등을 신조로 하면서도 그 자신 하나의 계급사회이기도 하다. 조직에는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의 중심을 갖는 것이 통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는 몇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 통일이란 점에 있어서는 불만족한 조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을 필요로 한다. 운영상의 노력을 하는 것은 몇 개 있어서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의 자태이다.

대학의 이념 내지 목표는 연구와 교육이 움직일 수 없는 전제인 이상, 대학의 관리 운영이 그

부동의 전제인 연구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언불요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대학개혁의 정향을 오늘날의 그릇된 대학 관리 운영의 실상과 대비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기본적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제1의 원칙은 대학이 학문연구와 교육의 부이며,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도 통일적으로 결합하는 장이 대학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학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의 탐구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일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환언하자면, 대학 내외로부터의 다종다양한 부당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목전의 이해득실을 타산함으로써 대학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사회로부터 격절 또는 유리된 존재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기능도 사회적 영위의 하나이고, 대학은 사회적으로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항상 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생산적 창조적 비판을 섭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며, 폐쇄적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종래에 대학이 저지않은 결함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대학이 주체성을 상실하여 현실 사회체제 속에 매몰되거나, 특히 권력기구의 자의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학 본래의 사명과 기능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본연의 자태로부터 도출되는 제2의 원칙은 대학의 관리 운영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항상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대학의 관리 운영기구가 대학인에 봉사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구 소속 개개인의 봉사자세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의 원칙으로 대학운영에서의 다수결의 원리에 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상이한 사상과 신조를 동시에 포용하고, 복수의 가치관의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편의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는 않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이 보다 진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의 원칙으로는 대학이 방대해지고 대학의 기구가 복잡해지면 대학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의 대부분을 관리 운영사무에 빼앗기고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에는 소홀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관리 운영을 교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넘겨버린다면 대학 본연의 목표에서 이탈한 또는 그 목표에 위배되는 관리 운영이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금후 대학의 관리 운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원의 관리 운영상의 보직부담을 적정화하고 그들의 참여 기회를 평등화하는 문제이다. ■

이광우/전남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객원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고 광주 YMCA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며, 현재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근대정치사에 있어서 쿠데타의 요인" 외 다수를 발표했다.